

생분해성 완충재 상용화로 발전 가속 예감 환경정책 및 소비자 인식 개선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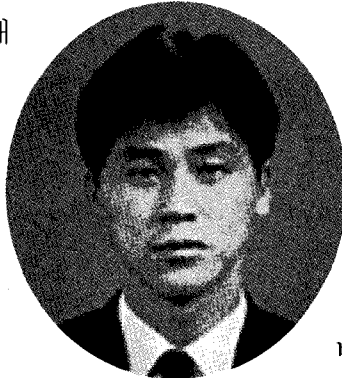
정 주 기 / 대상(주) 실수요영업본부 실수요2팀 과장

『현』 대문명의 총아 '인류의 최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 등 갖가지 수식어를 달며 세계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써온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과 1회용품 규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새로운 소재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 플라스틱”

“다이옥신 등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 등으로 풀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부가 “종량제 봉투에 생분해성 수지 30% 가량을 첨가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제재를 발효하면서 그 저변이 확대되게 된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라는 최대 강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식 전환의 미비와 고가(高價) 등의 이유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2년 말, (주)알.씨.코리아에서는 생분해성 완충재 처리기계를 개발, 환경친화성 플라스틱 소재 “바이오닐”을 개발한 식품업체 대상(주)과 협정을 맺고 국내외 산업에 친환경



원료 및 기계 공급을 통한 환경사업에 일조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대상(주)의 실수요영업본부 정주기 과장을 만나 “바이오닐”의 특징과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정주기 과장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부분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완충재를 사용하고 있다

면서 일본시장을 흐름을 파악, (주)알.씨.코리아가 생분해성 완충재 Greenplus System을 개발함에 따라 대상(주)는 환경친화성 소재 “바이오닐”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주)은 축적된 전분 변성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열가소성 전분(TPS)을 기초원료로 생분해성 수지와 컴파운딩하여 바이오닐을 제조하게 된다.

정주기 과장은 바이오닐을 원료로 제작된 생분해성 포장용 완충재 리그린-폼을 월 205톤 가량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그린-폼은 스티로폼 포장용 완충재를 완전 대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물인

전분으로 제조,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환경규제를 피할 수 있어 수출품 포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 과장은 지난해 말 개발된 (주)알.씨.코리아의 Greenplus System이 보완되는 이달 말쯤부터 본격 판매를 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상(주)은 물류비를 감안, 향후 소재류 생산에 포커스를 맞춰 원료 판매쪽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분해성 수지가 고가(高價)인 점을 생각했을 때, 정 과장은 전분당 회사인 대상(주)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자신있게 밝힌다.

“대상(주)은 국내에서 생분해성 연구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마인드도 대상(주) 생분해성 제품이 현재 국내 생분해성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주기 과장은 영업을 하면서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을 하지만 구매행동으로는 연결시키지 않는 고객의 태도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하면서 환경문제보다는 원가절감 문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업체들이 여전히 즐비하다고 밝혔다.

3여년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어 온 것을 보며 그는 이

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가격적인 문제가 나오면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 과장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가 대부분 틈새시장을 위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로 구성돼 있는 현실을 보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관공서 단위의 영향력있는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전시켜야 효과적일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100% 생분해성 제품이 아닌 저가(低價)의 중국산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국내 유입 문제도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정주기 과장은 2003년 말에서 2004년쯤 안정적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대상(주)은 추후 홍콩, 중국 등의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주)이 식품업체임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연구개발 기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용기 부문을 강점으로 활용, 판매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지표를 마련해 나갈 대상(주)이 친환경적이라는 기업 모토와 함께 거듭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

박초혜 기자